

# 대한간호 100호를 발간하면서

최 상 순 (본회 출판위원장)

오늘 「대한간호」 지령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지낸 위대한 힘과 역사에 새삼 놀라움과 아울러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우리 회원으로서 이 환희와 감격을 무심히 넘겨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감격스러운 일들을 글지어 함께 느끼던 협회의 소리인 「대한간호」지가 이제 그 나이 100살이 되었으니 이 어찌 아니 축하하고 경하할 일이겠는가?

100호! 이미 「대한간호」는 갓난 아이가 아니요 또한 청년기가 지난 완숙해진 삶을 힘차게 펼쳐나갈 엄숙하고 근엄한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감격적인 때 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옷깃을 바로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일진대 우리의 「대한간호」는 지금 어디까지 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자못 묵중한 책임을 느끼며 좌표를 둘러보게 된다.

창간호 발간과 휴간, 1962년도에 복간될 당시 겪어야 했을 어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회열을 몸소 체험하신 선배님들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과 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도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장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이신가! 그간 이 「대한간호」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선배 회원님들께 감사하며 함께 오랫동안 가꾸고 다듬던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우리의 협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양적으로 팽창된 막강한 회가 되었고 간호사업도 눈부신 발전을 꾀하여 왔으나 「대한간호」지는 어

머하였는가? 단지 역사적인 초록의 산물로서 100호가 되었다고 만족할 것인가. 모든 일들이 무척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는 하나 그간의 득과 실을 과감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지난날의 장한 전통들을 정신적 유산으로서 효과적으로 계승해야 될 것이다.

우선 「대한간호」지가 4×6배 판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1969년도와 1978년도의 평균 편집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호당 평균 페이지 수는 66.3페이지(1969년)에서 102.5페이지(1978년)로 증가되었고 구성에 있어서도 지면보수교육, 연구논문, 번역문, 연구발표 및 리포트에 44.0페이지(1969년)이던 것이 49.7페이지(1978년)로, 특히 특집란이 8.0페이지(1969년)에서 26.2페이지(1978년)로 증대되었으며 서적소개와 소설등은 과거에 없었던 란이 할당되었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편집구성에 있어서는 1976년말 우리의 염원이던 신문 「간힘신보」의 창간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져와 한동안 산간벽촌 조그마한 보건소에서 부터 멀리 바다 건너 이국땅에 있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공동의 관심사를 논하여 오던 소식란과 회원문예란 등은 자연히 더 자주 발간되는 신문으로 대치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더 필요한 새로운 흐름과 지식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발전의 도약을 약속하게 된 것이다. 여하튼 1969년도와 1978년도의 「대한간호지」의 비교에 있어 총면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이루어진 각종 세미나와 보수교육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일견 큰 발전이 있었다고

##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

생각된다.

혹자는 「대한간호」지는 바로 대한간호협회의 활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판지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간호전문인들의 유능성, 계획 및 약속을 공개하는 유형의 본보기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간에 얼마만한 결실을 맺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대로 보다 풍부한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도록 출판위원들과 뜻을 같이 하시는 본들의 도움으로 이루어 보코져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 해본다.

그러나 우리의 괴로움은 한가지 큰 난관이 있다. 여러 회원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문제작과 부가의 「대한간호」지작은 과거 몇년 동안 해마다 출판결산의 지속적인 결손을 안고 살아왔고 금년에는 부족되는 협회 총 예산의 적자를 메꾸어 보기 위한 일환책으로 「대한간호」지의 만수를 줄이고 간호를 휴간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이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대한간호」를 월간으로 해보자는 숙원의 계획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코 용이치만은 않게된 현

실이다. 그간에 한호드 결호가 없었던 역사를 이렇게 벽천 100호 발간 해에 부닥쳐야 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때운다.

그러나 이제 회원 각각의 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제작과 대한간호를 위한 모금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가는 전망을 바라볼 때 머지 않아 외적이고 양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오히려 그동안 다만 알곡한 발전에 그쳤던 발전이 이제부터는 꾸준히 내실을 쌓아 올려 가다듬으며 길고 튼튼한 터를 닦는 풍토속에 알차고 빛나는 옥고들로 가득 채워진 진정한 간호원의 공지로 가장 필요한 「대한간호」지르씨의 내일을 기대하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모든 회원의 관심과 「대한간호」로 둘러지어 부족한 점은 꾸짖어 주고 격려해 주며 소중히 아끼받고 가까이 두어 친근해지는 「빛」이 되어야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속의 「대한간호」만이 아니고 사회속의 「대한간호」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며 우리만의 소유가 아닌 인류를 위한, 사회, 국가를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써 타국의 간호실간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확고한 목표를 두고 부진한 노력으로 온 회원들과 합심하여 이루어라 다짐한다.

##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 간호학

<개정판>

이 경 식 지음  
362페이지 정가 4,500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